

일하다가 목숨 잃는 노동자들

32세 몽골 이주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!

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차별 받지 않고
평안한 삶을 누리시길.....

다섯 살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해 32세가 된
강태완(몽골명 타이왕)씨가 지난 8일 자신의 일터에서
장비 실험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.

강태완씨는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2021년 7월까지
지내다 자진 출국했다가 2022년 3월 다시 입국해
경기도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
2024년 3월 HR E&I에 연구원으로 취직했고,
5년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강태완씨는 한국어밖에 하지 못하는
군포 출신 노동자였습니다.

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.

고인의 명복을 빕니다

KUPST.org

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

